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09.9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   |
|--------------------------------------------------|---|
| □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12월 개장 .....  | 2 |
| □ 그리스 Thessaloniki항, 「컨」부두 확장 국제입찰 재개 준비 .....   | 4 |
| □ 브라질 Santos항 Embraport 프로젝트에 DP World사 참여 ..... | 5 |
| □ 우루과이 Montevideo항 「컨」부두 추가 건설 논란 .....          | 6 |

## □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12월 개장

- DP World사는 인도 Cochin항의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IGT : India Gateway Terminal) 건너편에 위치한 Vallarpadam 섬에 International Container Transshipment Terminal (ICTT) 1단계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
  - 오는 12월 중에는 인도 최초의 환적 터미널인 ICTT가 일부 개장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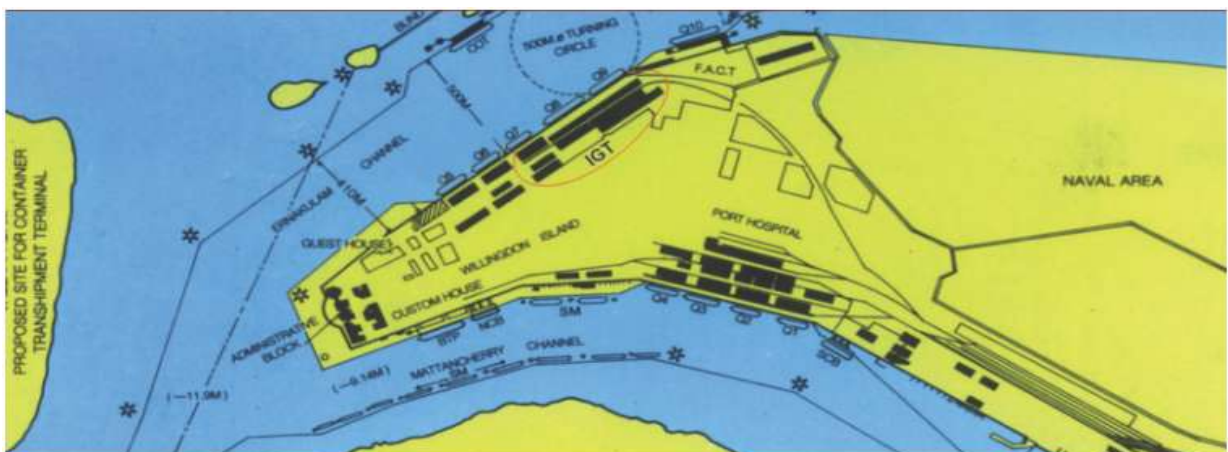
### ○ Cochin항 개요

- 인도 서남부에 위치한 Cochin항은 세계 해운의 간선항로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Hub 항만으로의 좋은 여건을 구비



### -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 IG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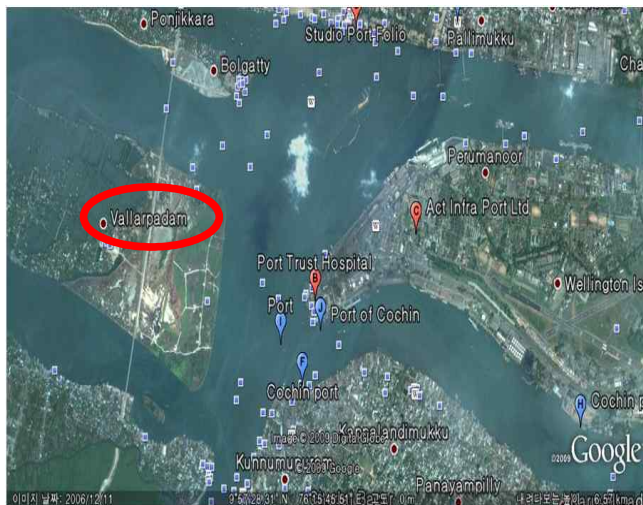
- 3선석 560m, 수심 12.5m, 연간능력 35만 TEU, 야드 면적 9ha(9만m<sup>2</sup>, 약 27,000평)
- 2004.3 DP World사는 Cochin Port Trust로부터 IGT의 운영권과 ICTT의 30년 BOT 조건의 개발 및 운영권을 Package로 확보



## ○ ICTT 프로젝트 개요

|                |                                                                                                                                                                                                                |
|----------------|----------------------------------------------------------------------------------------------------------------------------------------------------------------------------------------------------------------|
| <b>총부지면적</b>   | <b>110ha(110만㎡, 약 33만 3천평)</b>                                                                                                                                                                                 |
| <b>세부 시설현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12,500 TEU급 컨테이너선 접안 가능</li> <li>- 수심 16m, 선석길이 : 1단계 600m, 3단계 완료시 1,800m</li> <li>- 하역장비 : 1단계 Quay Crane 6기, Yard Crane 19기, Mobile Harbour Crane 2기</li> </ul> |
| <b>연간 처리능력</b> | <b>1단계 100만 TEU, 2단계 150만 TEU, 3단계 300만 TEU</b>                                                                                                                                                                |
| <b>총사업비</b>    | <b>240억 루피(약 6천억원), 1단계 125억 루피(약 3,100억원)</b>                                                                                                                                                                 |

## ○ ICTT 터미널 위치도 및 준공시 조감도



## ○ ICCT 개장시 인도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 분석

- 인도의 컨테이너 항만들은 모두 수심 문제로 대형 컨테이너 모선의 기항이 곤란
- 인근 스리랑카 Colombo항, Singapore항 또는 UAE Dubai항에서 피더선을 통해 인도 수출입 컨테이너를 환적함으로써 적어도 연간 100억 루피의 추가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 해운부의 자체 분석
- 실제 스리랑카 Colombo항의 경우 2008년 처리 전체물량 270만 TEU 중 70%에 달하는 170만 TEU의 물량이 인도 물량인 것으로 추정
- 보수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ICCT 개장시 컨테이너당 약 150불의 환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도 물류업계의 전망

자료 : India Gateway Terminal, Steelgru 2009.8.6, Live Mint 2009.6.12

## □ 그리스 Thessaloniki항, 「컨」부두 확장 국제입찰 재개 준비

- Aegea해 Thermai만 북동쪽에 위치한 Thessaloniki항은 1901년 개항된 항만으로서 Piraeus항 다음의 그리스 2위의 컨테이너 항만
- 2008년 238,940 TEU 처리(2007년, 447,211 TEU)
- 현재의 컨부두 시설은 3선석 600m, 수심 12m, 야드 350,000m<sup>2</sup>(약 106,000평)



## ○ 그간의 경위

- 2008.8 Thessaloniki 항만공사(TPA : Thessaloniki Port Authority)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Hutchison Port Holdings 컨소시움을 지정 · 발표
- 2008.12 Hutchison 컨소시움, 우선협상대상자 참여 철회 발표
  - 납부한 입찰참가보증금 640만불(약 85억원)은 포기

※ 그간의 진행경과 등은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3호(2009.5.13)의 내용 참조

## ○ TPA는 현재 컨테이너부두 확장 국제입찰의 재추진을 준비 중

- 기존 터미널을 장래 2014년까지 선석 길이 1,770m, 컨테이너 야드 710,000m<sup>2</sup> (약 215,000평), 수심 15.8m, 연간 처리능력 100만 TEU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확장하는 공사
- 총사업비 1억 5천만 유로(약 2,600억원), 낙찰자에게 30년간의 운영권(Concession) 부여

자료 : Thessaloniki Port Authority, Capital Greek 2009.8.13, Lloyd's List '09.4.16

## □ 브라질 Santos항 Embraport 프로젝트에 DP World사 참여

- 남미 최대의 항만인 브라질의 Santos항에서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
  - 2008년 처리 물동량 7,600만톤, 컨테이너 2,674,975 TEU 처리
  - 항만부지 770만m<sup>2</sup>(약 233만평), 9,400m의 선석을 보유



- Santos항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Embraport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5억불 (약 6천억원)의 프로젝트로서 2008.4 착공된 프로젝트이나, 시행사인 Coimex사의 자금난으로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
  - 항만부지 80만m<sup>2</sup>(약 24만평), 컨테이너 및 액화별크 선석 5개 선석 건설

### < Santos항의 개발 프로젝트 >



### < Embraport 프로젝트 개요 >



- Embraport 프로젝트 시행사인 Coimex사는 동 프로젝트의 다수 지분을 브라질 유수의 건설사인 Odebrecht사 및 DP World사 컨소시움에 양도키로 합의
  - DP World사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 번째의 남미 네트워크 구축

자료 : Santos City, Emirates Business 2009.8.31

## □ 우루과이 Montevideo항 「컨」부두 추가 건설 논란

- 우루과이의 수도인 Montevideo항은 2008년에 675,273를 처리(2007년, 596,487 TEU)



- 2009년 7월말 우루과이 상원이 Montevideo항의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 이외에 두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현재의 운영사와 신규 증설을 찬성하는 경쟁사간에 논란이 전개 중
- 현재의 운영사는 2001년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획득한 Terminal Cuenca del Plata(TCP)사
- TCP사는 운영권 획득 당시의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288m 선석, 수심 10.5m, 야드 17.2ha)을 그간 1억 1천만불을 투자하여 2009.10 확장된 시설을 개장할 예정
- 638m 선석, 수심 14.5m, 야드 28.7ha의 시설로 확충



- TCP사의 지분은 벨기에의 종합물류사인 Katoen Natie사가 80%, 우루과이 항만청 (ANP : Administración Nacional de Puertos)이 20%를 보유

※ Montevideo항의 벌크부두 운영사인 Montecon사는 신규 건설을 적극 환영 입장

자료 : Terminal Cuenca del Plata, Fairplay International Shipping Weekly 2009.8.13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